

광주FC, 수원과 안방 맞대결...5월 대반격 나선다

내일 K리그1 9라운드 경기... 충격적 5연패에 11위로 추락 수문장 김경민 복귀·ACLE 엘리트 본선 진출 등 호재 이어져

숨 고른 광주FC가 승점 사냥을 재개한다. 광주FC가 27일 오후 4시 30분 광주죽전운동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4 9라운드 경기에 나선다. 재정비 시간을 보낸 광주FC의 5연패 탈출 도전 무대다.

광주는 지난 20일 예정됐던 울산HD와의 8라운드 홈경기를 쉬어갔다. 울산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경기가 5월 15일로 연기되면서 찾아온 휴식. 광주에는 원점에서 팀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개막 연속으로 기분 좋은 출발을 했던 광주는 지난 7라운드 전북전 1-2패배와 함께 5연패 늪에 빠졌다.

충격적인 패배가 이어지면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광주의 순위는 11위까지 내려왔다.

광주는 홈팬들 앞에서 새로운 질주를 준비하고 있다.

일주일의 휴식을 보낸 광주는 지난 20일 한남

대와 연습경기를 갖고 실전 감각을 점검했다. 이날 이근희와 오후성이 멀티골을 장식했고, 올 시즌 많은 경기에서 나서지 못한 아사니도 득점을 기록하면서 어필 무대를 가졌다.

수문장 김경민의 복귀도 준비됐다.

김경민은 5라운드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핸드볼 반칙으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두 경기를 쉬어갔다. 베테랑 수문장이 빠진 경기에서 광주는 패배를 더했다.

베테랑의 노련함이 필요한 위기 상황인 만큼 김경민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광주의 올 시즌 고민 지점도 '수비'다. 지난 시즌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작성했던 광주지만 올 시즌에는 11득점, 12실점으로 골득실차가 '-1'을 기록하고 있다.

안정된 수비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광주의 흐름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김경민이 복귀하는 그라운드에 베테랑 이영택과

김경재도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면서 '경험'이 더해졌다.

이정호 감독은 두터워진 스쿼드로 '추가 시간'이라는 속제를 풀 계획이다. 광주는 올 시즌 전후반 추가시간에 연달아 실점을 기록하면서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는 모습을 보였다.

수원FC는 최근 연승을 기록하면서 5위에 자리하고 있다.

앞선 제주전에서 교체 멤버로 들어가 1골 1도움을 기록한 이승우가 경계 1순위의 상대다.

또 '패스마스터' 윤빛가람,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이웅과 공격수 지동원 등 '스타플레이어'들이 버티고 있는 만큼 이들의 경험도 광주에는 위협적이다.

광주는 수원FC전에 앞서 '한우 회식'도 갖는 등 그라운드 안팎에서 승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얼마 전에는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고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무대에 직행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다.

새 출발선에 선 광주가 연패를 끊고 반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27일 홈에서 수원FC를 상대로 5연패 탈출에 도전한다. 퇴장 징계에서 벗어난 베테랑 수문장 김경민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수비가 승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주FC 제공>

나주시청, 전국사이클대회서 메달 10개 휩쓸어



박서희(가장 오른쪽)가 지난 23일 전남사이클경기장에서 유니폼 스크래치 경기를 하고 있다.

박서희 금1·은3·동2개 획득 여자 일반부 3위 기록 이끌어

나주시 전남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제41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나주시청이 메달을 휩쓸며 선전했다.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나주시청 사이클팀은 총 10개의 메달(금1, 은6, 동3)을 획득하며 종합성적 여자 일반부 3위에 올랐다.

나주시청의 이번 성적에는 '주장' 박서희(24)가 큰 역할을 했다.

박서희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따내며 빛나는 활약을 보였다.

오픈(팀포레이스)에서 1위에 오른 그는 단체 추발, 메디슨, 유니폼(제외경기)에서 2위, 유니폼 종합과 스크래치에서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다리를 믿었다'고 말한 박서희는 2022년 나주시청에 입단해 올해로 3년 차다. 대회 입상에 실패했던 지난해 대회와 달리 박서희는 올해 급속도로 성장하며 '달라진 몸'으로 이번 대회에서 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박서희는 "작년에는 메달을 하나도 못 땀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몸이 지금에 비해 많이 부족했고 자신감 있게 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이번 시합에서는 내 다리를 믿었다. 원래 겁이 많은 성격인데 두려움을 떨쳐내고 과감하게 임했더니 좋은 성적이 나와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나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이 25일 전남사이클경기장에서 메달을 목에 걸고 미소를 짓고 있다. 왼쪽부터 박은비, 장주애, 박서희, 문수진, 원희진. <나주시청 사이클팀 제공>

그가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힘은 지도자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였다.

박서희는 "감독님, 코치님도 자신감을 많이 올려주시려고 노력하셨다.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예전엔 사이클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었다. 그런데 몸이 이제는 달라진 걸 느낀다. 이제는 대표 팀에 들어가야겠다는 목표도 생겼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나주시청 장영우 감독은 "선수들이 다들 열심히 해준 덕에 대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함께 한 선수단에 고마움을 전했다.

/김진미 기자 jinggi@kwangju.co.kr

손흥민 '북런던 데비'서 EPL 10-10 겨냥

28일 아스널과 35라운드 홈 경기 뉴캐슬전 부진 씻고 4위 추격 시동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과 '캡틴' 손흥민(사진)이 아스널과의 '북런던 데비'에서 반등을 노린다.

토트넘은 28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아스널과 2023-2024 프리미어리그(EPL) 35라운드 홈 경기에 나선다.

토트넘은 13일 뉴캐슬과의 33라운드 원정 경기 이후 20일 예정됐던 34라운드 상대 맨체스터 시티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일정으로 연기되면서 보름 만에 경기를 치른다.

직전 뉴캐슬전에서 토트넘은 0-4로 완패하며 리그 3경기 무패(2승 1무)가 끊기고 EPL 5위(승점 60)로 밀려났다.

토트넘이 경기를 치르지 않는 사이 4위 애스턴 빌라가 연승을 거두며 승점 66이 돼 2경기를 덜 치른 토트넘과 승점 6차로 멀어졌다.

이번 아스널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첼시, 리버풀 등 부담스러운 상대를 연이어 만나는 토트넘으로선 뉴캐슬전의 부진을 씻고 4위 추격에 다시 시동을 걸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선두(승점 77)인 아스널 역시 리버풀(승점 74), 맨시티(승점 73) 등 추격자들을 더 따돌리려면 잡고 넘어가야 할 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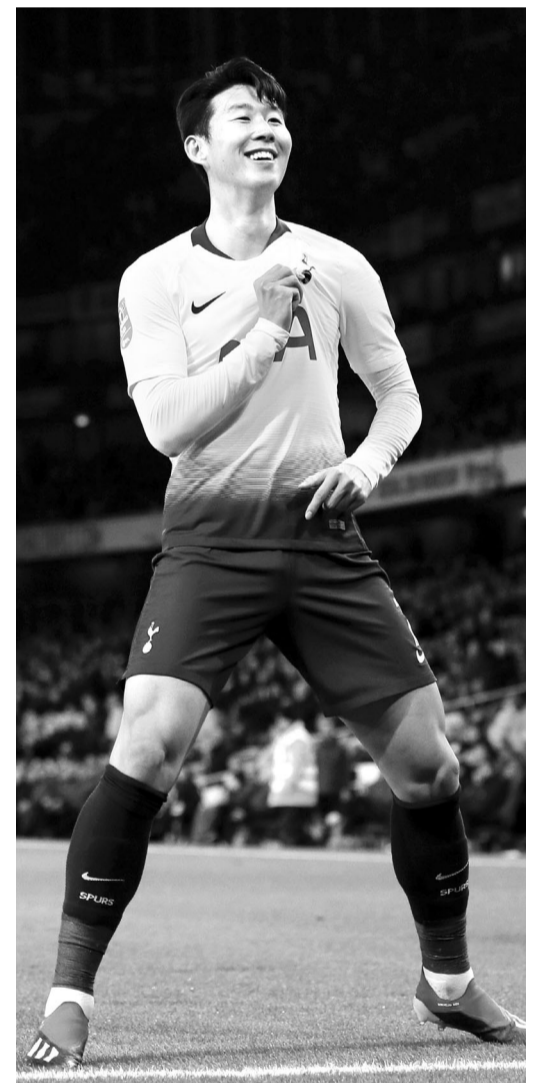
손흥민 개인에게도 중요한 경기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15골 9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지난달 말 루턴타운과의 30라운드 이후 3경기째 득점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히 뉴캐슬과의 경기 맨 선발로 출격했다가 팀이 고전한 가운데 후반 13분 대안 콜루세브스키로 교체돼 나가면서 이번 시즌 리그에서 선발로 나선 경기 중 가장 짧은 시간을 소화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그가 아스널을 상대로는 통산 리그 17경기, 리그컵 2경기에서 7골 2도움을 올리며 맹활약한 터라 이번 경기에서도 해결사로 돌아올 거란 기대감이 크다.

지난해 9월 아스널과의 9라운드 원정에서도 손흥민은 1-1 동점을 만드는 골과 2-2로 다시 균형을 맞추는 골을 모두 책임지며 2-2 무승부를 이끌



어 강한 면모를 확인한 바 있다. 손흥민의 '리그 10골-10도움' 도전도 이어진다. 손흥민은 도움 하나만 추가하면 2019-2020시즌(11골 10도움), 2020-2021시즌(17골 10도움)에 이어 EPL에서 개인 통산 3번째 10골-10도움을 채우게 된다. 무릎 부상으로부터 지난달부터 경기를 거의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브라질 공격수 히샤를리송의 복귀가 점쳐지는 가운데 손흥민이 최전방이나 왼쪽 측면 중 어디에 설지도 공격 포인트 사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은 27일 밤 11시 루턴타운과의 EPL 35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범죄도시4
- 2관 범죄도시4
- 3관 파묘, 남은 인생 10년, 챌린저스
- 4관 범죄도시4
- 5관 범죄도시4
- 6관 범죄도시4
- 9관 범죄도시4, 몬스터 프렌즈
- 7관 씨네커플 쿵푸팬더4, 더글부대
- 8관 씨네커플 파묘, 오멘: 저주의 시작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5월

광주상설공연(5월)

일시 : 2024-05-04(토) ~ 2024-05-26(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광주시립발레단 제137회 정기공연 'DIVINE'

일시 : 2024-05-24(금) ~ 2024-05-25(토)

05.24(금) 19:30

05.25(토) 15:00,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